

嶺南 南人の 祭文을 통해 본 家族의 의미*

한 의 송**

- I. 머리말
- II. 嶺南 南人 문집 소재 가족 관련 祭文의 수록 양상
- III. 嶺南 南人の 祭文에 나타난 家族의 형상
 - 1. 兄弟에 대한 그리움과 우애
 - 2. 妻子에 대한 회한과 애뜻함
 - 3. 親戚에 대한 연민의식
- IV. 嶺南 南人の 祭文에 나타난 家族의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 이후 嶺南 南人에 의해 창작된 祭文을 통해 영남 남인이 家族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내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형해화 되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현재적

* 이 논문은 2017년 12월에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 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주셨던 전남대학교 철학과 이향준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필자에게 ‘개념적 은유’라는 방법론적 관점을 통해 제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유의미한 지적을 해주셨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당시 토론에서 제안해 주셨던 다양한 지적 사항과 제안을 충분히 수용하지는 못했다.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며, 차후 제문 관련 연구를 조금 더 진전시킨 다음 발전된 논의로 정리할 때 수렴해 보고자 한다.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 lovehes@hanmail.net

시각에서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를 위해 영남 남인의 제문 가운데 兄弟와 妻子, 親戚을 중심으로 한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문학적 특성과 미감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형제와 관련된 제문에서는 제문 특유의 형식미를 존중하면서 亡者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일화를 사실적으로 포치하여 생존 당시의 생생한 감정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보였다. 그리고 처자와 관련된 제문에서는 자식을 먼저 보낸 황망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분출이나 폭발은 자제하는 담백한 정조로 서술하거나,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로서 인고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동반자의 일생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친척에 대해서는 생전에 우애와 성품 그리고 당사자와 공유했던 경험, 받았던 도움을 서술함으로써 망자와의 추억을 회상함과 동시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아련한 연민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영남 남인의 제문에 형상화 된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새롭게 부각되고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하지만 영남 남인의 제문 자료를 정리한 뒤, 가족과 관련된 의미망의 형성을 추적해 본 것에 우선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영남 남인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로컬리티’의 관점을 중심에 두고 ‘지역’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영남이란 지역과 인물의 존재 의미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며, 본고는 이에 대한 전초적 작업이란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영남 남인, 제문, 가족, 로컬리티, 회한

I. 머리말

최근 언론을 통해 비쳐진 한국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에까지 미칠지에 대해 예측해 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¹⁾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로봇의 역할과 그에 따른 일자리 부재로 인한 인간의 실업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일자리 상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실업, 미혼의 증가, 저출산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맞닿게 된다.

그럴 경우 당연히 한국의 미래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가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가족 구성 변화의 흐름을 좇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와해, 해체되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 변화를 통계청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45년이 되면 4인 가구의 비중이 7%로 까지 줄어들게 되며, 10가구 가운데 7가구는 1·2인 가구가 될 것²⁾이라는 의미심장한 전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가족 구성의 변화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1·2인 가족의 구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이라는 울타리 또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상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전지구적 글로벌리즘의 부각과 함께 과거의 전통적인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역시 급속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의미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시기를 예비하는 중이기도 하다.

1)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인공지능의 시대와 ‘고전’의 관계에 대해 시론적 논의를 펼친 바 있다. 한의승,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고전 독해’에 대한 시론적 탐색」, 『한민족어문학회 324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

2) 『중앙일보』, 2017년 4월 13일, 「급속한 가족해체, 2045년 10가구 중 7가구는 1·2인 가구」

그렇다면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 고전의 시각을 통해 미래 사회를 예비해야 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길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모로 심사숙고할 지점이 많아지는 요즘이라 할 수 있다.

전통시대의 가족과 관련하여 언급할 때 우리는 먼저 가문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族譜³⁾를 떠올리게 된다. 족보는 혈연과 계보를 중심으로 한 기록임과 동시에 유교적 친족윤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와 함께 영남지역의 경우 宗家文化⁴⁾라는 지역 특유의 특징적 양상 또한 자리하고 있다. 가문의식에 바탕을 둔 종가문화는 대대로 내려져 온 집안 고유의 전통을 유지, 전승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개별 종가의 독특함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가문화는 종중원들이 수세기에 걸쳐 전일하게 노력한 결과이며, 한 집안을 넘어서서 로컬리티(locality)로 이해되어야 하는 지역성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가문화는 지역 특유의 전통적 가문의식이 내장된 한국의 전통적 가족상의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의미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종가문화는 기본적으로 대가족 중심의 문화생활양식 전반을 의미한다. 기준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에 있다. 가문을 중심으로 선대에서 내려온 집안 고유의 가례문화가 종가 문화의 핵심이며, 특히 영남 지역에 존재하는 종가는 제각각 가문 특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근래 들어 로컬리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고 자란 영남을 중심으로 영남 남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榮州지역을 중심으로 영남 남인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⁵⁾와 문집에 수록된 ‘雜著’ 항목을 중

3) 권기석, 『족보와 조선 사회』, 태학사, 2011 참조.

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경북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종가문화에 대한 연구와 출판 간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 한의승, 「人文地理적 관점에서 본 嘯阜 朴承任의 『門人錄』」, 『한국선비연구』3,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2015; 「『嶺南人物考』에 수록된 榮川 지역 文人 研究」, 『한국선비연구』4,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2016

심으로 영남 남인의 문학적 성향에 대한 고구를 시도한 게 그것이다.⁶⁾ 그 결과 학술사적 의미에서 조명되었던 영남 남인이 문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다채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영남 남인과 관련된 최근 연구를 통해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⁷⁾

기본적으로 영남 남인은 17세기의 庚申, 己巳, 甲戌換局을 거치면서 정치적 부상과 몰락을 경험한 이후 향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름의 세력을 확보하고 지역에 밀착한 삶을 살아온 집단이다.⁸⁾ 그들은 중앙 정계의 진출을 숙원으로 여겼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향촌 사회의 중장을 자임하며 재야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가족과 가문이란 존재는 삶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보호막과 같은 것이었다. 가족과 가문에 대한 애정은 굳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가족과 가문의 生과 死는 영남 남인에게는 단순한 生死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영남 남인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어떤 의미로 반추,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가족의 죽음을 통해 이별을 맞이하는 심정을 표현한 양식인 祭文이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과 의미를 살피는데 적합한 텍스트라 생각하게 되었다.

양식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애제문은 제사 때 산천의 신에게 기도하는 고문·축문·도량문·제사·청사나 제문, 망자에 대한 애도의 정을 표시하는 애사·제문·조문·뇌 등을 포괄하는 장르이다.⁹⁾ 이 가운데 제문은 제전을 올릴 때 낭독하여 망자의 영혼이 제수를 흠향하기를 기원하며, 제전에서 선독하지 않더라도 이 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글의 벽두에 “유년월일, □□□□근

6) 한의승, 『汨董錄』 소재 逸話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6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關幽錄』 계열 ‘雜錄’의 유전 양상 연구, 『大東漢文學』50, 大東漢文學會, 2017

7) 이종호, 「지역 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39, 韓國漢文學會, 2007

8) 우인수, 『朝鮮後期 嶺南 南人 研究』, 경인문화사, 27-46쪽 참조

9) 심경호, 『한문 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588쪽

이청작서수지존, 제우□□□묘하”라는 격식이 있고, 말미에 “오호애제, 상향”을 두는 형식으로 구성된다.¹⁰⁾

제문에 대한 연구는 실용문적인 성향이 강한 관계로 그동안 문학 연구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포섭되지 못했다. 때문에 제문과 관련된 논의 역시 폭과 다양성에 있어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제문에 대한 연구 성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제문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논의¹¹⁾, 제문의 형식과 그 특징에 대한 논의¹²⁾ 등이 주로 이뤄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제문을 중심으로 한 논의¹³⁾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애제문을 중심으로 편역한 편역서도 출간된 바 있다.¹⁴⁾

본고는 제문의 양식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제문을 통해 영남 남인이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내고자 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형해화 되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현재적 시각에서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0) 심경호, 앞의 책, 590쪽

11) 김운조, 「연암의 이몽직 애사에 대하여」, 『漢文教育研究』4, 韓國漢文教育學會, 1990 ; 「농암의 애제류 산문문학소고」, 『韓國漢字漢文教育』4,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1998 ; 서정화, 「박제가의 제문 및 송서 연구」,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5

12) 김성기, 「제문문의 성격과 구조」, 『우전 신호열 선생 고회 기념 논총』, 창작과 비평사, 1983 ; 이은영, 「조선 후기 어제 제문의 서정성과 규범성」, 『韓國漢文學研究』30, 韓國漢文學會, 2002 ; 「제문의 구조와 미적 특징」, 『大東漢文學』12, 大東漢文學會, 2002 ; 이승수, 「제문 형식의 미학적 가능성」,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 이은영, 「애제문의 특징과 변천과정」, 『東方漢文學』31, 東方漢文學會, 2006

13) 유경숙, 「조선조 여성 제문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5 ; 정수미, 「조선시대 망실 제문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1999 ;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녀문 연구」, 『韓國漢文學研究』30, 韓國漢文學會, 2002 ; 「조선후기 제문 연구 : 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25, 大東漢文學會, 2006 ;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국어국문학』138, 국어국문학회, 2004

14) 이승수, 『옥같은 너를 어이 묻으랴』, 태학사, 2001

Ⅱ. 嶺南 南人 문집 소재 가족 관련 祭文의 수록 양상

영남 남인의 문집 속에 수록된 제문은 일반적으로 스승이나 교유관계에 있었던 벗을 추모하며 쓴 글¹⁵⁾이 다수를 이룬다. 가족과 관련된 제문 또한 친척을 중심으로 한 글이 다수를 이루며, 부모나 형제, 처자 등 이른바 직계 가족에 대한 글은 생각보다 그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쓴 제문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대략적 양상을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1〉 17세기 이후 영남 남인 문집 소재 직계 가족 관련 제문의 양상

문집명	저자	생몰연대	수록권수	제목
蘆洲集	金兌一	1637-1702	권3	祭伯氏砥南公文, 祭亡弟後一文
玉川集	趙德鄰	1658-1737	권9	祭伯兄壺峯公文, 祭亡弟汝觀文, 祭亡室恭人權氏文, 祭亡室恭人姜氏文
屏谷集	權榘	1672-1749	권8	祭亡室孺人文, 祭亡妹娘子文
華齋集	黃翼再	1682-1747	권4	祭亡子宗翰文
靑壁集	李守淵	1693-1748	권3	祭舍妹權室文
牛川集	鄭玉	1694-1760	권6	祭令人成氏文, 哭仲子崇簡文

15) 사대부의 경우 그 특성 상 사제 관계, 교유 관계가 삶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 보니 망자를 기리는 제문의 대부분은 스승과 벗에 대한 글이 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스승에 대한 제문의 경우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존송과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등의 정서가 문면에 기저를 이룬다. 아울러 벗에 대한 제문의 경우 대의를 향해 정진하던 모습을 반추하면서 뜻을 함께 이루지 못하고 이별한 것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포커스를 가족에 집중한 관계로 스승과 벗에 대한 제문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치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厚菴集	權濂	1701-1781	권7	祭五弟來活文, 告亡兒以觀生朝文, 哭小祥文, 哭出後兒以臨文, 祭三弟善卿文, 祭七弟清之文
樹谷集	權旦	1709-1778	권5	祭仲兄巢谷公文, 祭亡室孺人竹溪安氏文
渴睡軒集	金위	1709-1789	권3	哭亡子文
芝谷集	金正漢	1711-1766	권3	祭亡子英得文
眠雲齋集	李周遠	1714-1796	권3	祭仲氏遷葬時文, 祭伯氏冷泉公文
霽巖集	崔宗謙	1719-1792	권5	祭仲弟伯達文
梧竹齋集	趙宜陽	1719-1808	권5	祭八友仲兄文, 哭上舍弟夢陽文, 祭亡室贈貞夫人永陽李氏文
靜窩集	趙錫喆	1724-1799	권6	祭伯兄慕友堂府君文, 祭仲兄文, 祭舍弟精舍翁文, 祭亡室宜人安東權氏文
梧山集	徐昌載	1726-1781	권5	祭家兄文, 祭家弟尙汝文
一峯集	趙錫晦	1727-1802	권3	祭伯氏公文, 祭三弟君輔文, 哭亡子文
雨臯集	金道行	1728-1812	권5	祭亡子始翰文
臨汝齋集	柳玆	1730-1808	권5	祭亡室贈淑夫人李氏文, 祭殤兒雄介文
舊堂集	趙沐洙	1736-1807	권6	祭亡弟長汝文, 祭亡室端人平山申氏文
俛庵集	李우	1739-1810	권10	祭亡弟可久文
鶴林集	權訪	1740-1808	권11	祭伯兄處士府君文, 祭亡子욱文, 祭亡室淑人體泉權氏文,
晚洲集	權以復	1740-1819	권3	哭兒綱美, 哭葬日文, 哭兒商美, 哭兒畢庚
雪坡集	孫星岳	1741-1813	권5	哭金室女文
北亭集	李宗周	1753-1818	권4	祭亡室孺人全州柳氏文

嶺南 南人の 祭文을 통해 본 家族의 의미(한익승)

魯庵集	鄭必奎	1760-1831	권6	祭亡室恭人密陽朴氏文, 祭兒光儒文
石窩集	權緯	1762-1835	권3	哭亡子儒憲文
一一齋集	金是瓚	1754-1831	권4, 권5	祭宜人鄭氏文, 祭舍弟是璫文, 哭亡兒鍾儒
兢庵集	姜世揆	1762-1833	권4	祭長子輔欽文
鶴棲集	柳台佐	1763-1837	권12	祭亡弟士能文, 祭亡室眞城李氏文
石山集	韓文健	1765-1850	권8	祭亡女李氏婦文
大埜集	柳健休	1768-1834	권9	祭舍弟子儀文, 祭亡室眞城李氏文, 祭子婦聞韶金氏文
修溪集	李升培	1768-1834	권7	祭仲兄, 祭식兒, 祭亡女
雲谷集	李羲發	1768-1850	권12	祭故室眞城李氏文, 祭第二子魯璧文, 祭弟三子魯翼文, 祭第二子婦密陽朴氏文, 祭側室子魯貞文
好古窩集	柳徽文	1773-1832	권19	祭伯兄素隱公文, 祭亡子致堯文
桐巢集	金重夏	1784-1860	권3	祭柳氏妹文, 祭長自婦金氏文, 祭李氏妹文
鶴南集	李晦慶	1784-1866	권8	祭舍弟紱五文, 哭長子運衡文
晚開軒集	權遇準	1788-1870	권4	祭伯兄八窩公文, 祭仲兄都正苞齋公文, 祭四季上庠公發文, 祭亡妹葛川金孺人文
素無軒集	琴書述	1791-1872	권4	祭先兄梅村公文
龜陰集	金光壽	1801-1871	권3	哭亡子鎮泓文, 祭舍弟季實文

耐軒集	李在永	1804-1892	권3	祭伯兄晚窩公文, 祭仲兄深隱公文
守礪集	裴善源	1808-1880	권5	祭伯兄上舍公文, 祭亡弟性深文, 祭亡弟性實文, 祭鄭妹文, 祭李女文
魯園集	金喆銖	1822-1887	권8	祭叔弟翼五文, 祭季弟公摺文, 祭室人陝川李氏文, 祭仲子萊永文
恥庵集	金碩奎	1826-1883	권7	祭趙氏妹文, 祭亡室完山崔氏文, 寄亡兒正鉉文
大溪遺稿	黃在英	1835-1885	권6	祭亡弟應韶文, 祭亡室恭人金氏文, 哭殤子曾賜文
石塢集	權秉燮	1854-1939	권7	祭仲弟深彥文, 哭季弟淸彥文, 祭故室孺人宣城金氏文
某溪集	金鴻洛	1863-1943	권3	祭仲子有東文
文巖集	孫厚翼	1888-1953	권16	祭金氏姉文

위의 <표1>은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嶺南文集解題』¹⁶⁾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간행한 『文集解題』¹⁷⁾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영남 문집해제』의 경우 영남 지역에서 출간된 문집의 전모를 자료 정리의 일환으로 시도한 최초의 작업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작업이 1988년에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임을 본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영남 문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집해제』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 문집해제 사업의 일환으로 영남 문집의 전모를 그려보기 위한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남 지역 문인이 발굴, 소개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위의 두 기관의 작업을 통해 영남 문집의 전모가 상당수 정리될 수 있었다.

1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嶺南文集解題』, 1988

17) 한국국학진흥원, 『文集解題』1-24, 2002-2017 참조

이와 함께 영남 문집에 대한 연구¹⁸⁾와 영남의 한문학과 관련된 학술성과가 제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¹⁹⁾ 특히 장인진은 영남에서 간행된 문집 1213종을 대상으로 시대별 출판 상황과 특징을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관판본은 17·18세기 간본이 78.53%(128종), 서원판본은 18·19세기 간본이 69.57%(96종), 사가판본은 19세기 이후 1910년까지 간본이 77.3%(705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²⁰⁾

위의 <표1>은 영남 남인 문집에 수록된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문 전체를 정리한 것은 아니다.²¹⁾ 하지만 17세기 이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문에 있어서 그 양적 분포가 급격하게 증가된 양상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를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제문에 나타난 가족의 형상을 형제, 처자, 친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嶺南 南人의 祭文에 나타난 家族의 형상

이번 장에서는 영남 남인의 제문 가운데 형제, 자매와 처자 및 친척을 대상으로 한 것을 선별하여 특징적 국면과 심리적 미감의 표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문이라는 공통된 양식이지만 서술 대상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정서적 미감을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있다.

18) 이구의, 「嶺南 漢文學 資料集成의 事例와 그 意義-權泰乙 編『尙州漢文學』을 中心으로-」, 『大東漢文學』45, 大東漢文學會, 2015 ; 황위주, 「일제강점기 문집편찬과 대구·경북지역의 상황」, 『大東漢文學』49, 大東漢文學會, 2016 참조.

19)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학적 양상』,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총서12, 계명대 출판부, 2011 ; 김윤조 외, 『18세기 영남 한문학의 전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총서26, 계명대 출판부, 2011 ; 정병호, 『영남 선비의 형상과 인문정신』, 지성인, 2015

20) 장인진, 위의 책, 315쪽 참조

21) 영남 남인의 문집 전반을 다 살펴본 상황에서 작성된 표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위의 표는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 주목적이다.

1. 兄弟에 대한 그리움과 우애

제문은 기본적으로 亡者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의 정서가 기저에 깔려있다. 산 자의 입장에서 죽은 자의 삶에 대해 특기할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추모의 정서가 바탕에 있어서 비극적 정조가 강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이는 감정의 流露를 충실히 견지하고 있는 제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문은 그 성격상 실용문적인 측면이 바탕에 깔려 있기에 형식미에 대한 고려 역시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서정성과 형식성, 양자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는 장르가 제문이다.

제문의 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선초에는 보편화와 정형화의 양상을 띠다가 중기로 넘어오면서 제문이 양산되며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고, 후기에는 서정성의 확대와 전범의 이탈 현상이 일어나며, 구한말에 들어서는 애국심의 고취와 울분의 토로가 주된 정조를 이루고 있는 게 확인된다.²²⁾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가족과 친척을 중심으로 한 제문의 창작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이는 17세기를 기점으로 폭발적 증가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16세기말 17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壬丙 兩難을 통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670-71년 庚申大饑饉²³⁾을 통해 전염병과 기아 등으로 가족과 친인척 다수를 잃은 경험에서 연유된 것으로 이해된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으로 인해 17세기 조선은 전반적으로 혼돈으로 접철된 시기였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생과사의 갈림길로 갈라지던 가족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다수의 사망자 발생에 따라 17세기에 제문의 창작이 늘어난 게 사실이긴 하나

22) 이은영, 「애제문의 특징과 변천과정」, 『東方漢文學』31, 東方漢文學會, 2006, 278-291 참조.

23) 1670-1671년 대기근을 ‘경신대기근’이라 하는데, 이때 발생한 사상자만 무려 100만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중 서울과 팔도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 수가 5만 2천 명, 사망으로 보고된 수가 2만 3천 명이라 한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흑한 등으로 인해 17세기는 혼란의 시기일 수 밖에 없었다. 김덕진, 『대기근』, 푸른역사, 2008, 165-219쪽 참조.

제문의 성향이나 정서의 요인을 전쟁과 대기근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목할 필요는 있다.

오히려 당시 일반적인 제문의 성향은 아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형제간의 정은 수족과 같은 것이라,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사랑은 차이가 없다. 형제가 장수와 복록을 누리기를 그 누가 바라지 않겠으며 형제가 당하는 죽음과 곤역을 또한 그 누가 슬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느끼는 정은 실로 보통 사람의 정보다 갑절이나 깊은데, 그것은 내가 맑고 밝고 온화하고 순수한 아름다운 자질을 지닌 데다 이마가 도톰하고 볼이 복스러운 빼어난 용모를 지녔으며 효성과 우애가 타고난 품성에서 나오고 순하고 정숙함이 여인의 법도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아름다움을 갖춘 데다 우리 집안에 태어나기까지 하였기에, 너의 장수와 복록을 바라는 마음이 마치 계약서를 쥐고 아침저녁으로 빛을 독촉하거나 곡식을 심고 가을걷이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이와 반대로 되어,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지 못하고 남편을 채 3년도 섬기지 못하였으며 살아서는 시부모에게 돌아가 뵈지 못하고 죽어서는 남겨 둔 어린 자식을 보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당할 수 있는 지극한 슬픔을 모두 당하여 천하에서 가장 딱한 처지가 되었으니, 그 누가 너처럼 어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한 운명을 타고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하늘인가, 인간인가, 신령인가, 귀신인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가 누구란 말이나? 슬프디 슬프고 애통하디 애통하다.

우리 형제 일곱 사람 중에 너는 여섯 번째로 나보다 14년 뒤에 태어났으니, 지금 너의 수명을 나와 비교해 보면 겨우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세 살을 덜어 주었다는 것이 비록 황당무계한 말이지는 하나 자신이 백 번을 죽어서라도 죽음을 대신하고 싶어 했던 것이 또한 옛사람의 소원이었으니, 만약 우리 여섯 사람이 각기 나이를 덜어 내어 너의 목숨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어찌 털끝만 치라도 아까워하겠느냐. 그런데도 하늘이 너 한 사람의 수명만 짧게 하여 우리 형제들을 한없이 슬프게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어쩌면 낳고 죽이고 수명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하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인가? 슬프디 슬프고 애통하디 애통하다.²⁴⁾

24) 金昌協, 『農巖集』, 卷29, 〈祭亡妹文〉, “兄弟之情, 如手如足, 賢愚才否, 愛則無間.

위의 예문은 農巖 金昌協(1651-1708)의 〈祭亡妹文〉 가운데 한 부분을 발췌한 구절이다. 농암의 여섯째 누이동생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일찍 세상을 뜨게 되자 농암이 지은 것이다.

농암의 경우 누이동생을 먼저 보낸 남은 자의 아픔을 위의 밑줄 친 구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즉 ‘형제들이 자신의 나이를 각자 덜어 내어 그만큼 만이라도 목숨을 연장시킬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표현을 통해 요절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형제를 대상으로 한 제문의 경우 同根連枝의 가지 하나가 잘려나간 것으로 표현되듯 한 부모 아래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을 공유한 것, 그것을 추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마련이다. 따라서 죽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형제의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던진 충격만으로도 슬픔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그 원인까지 되새기게 하는 것은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농암을 비롯한 노론계 문인들의 제문은 감정을 격절하게 토로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세밀하게 그려나가는 글들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편이다. 때문에 문학적 심미성의 관점에서는 제문이 가진 전범성을 바탕으로 하되 문학적 감수성이 도드라진 문예문으로 창작되는 경향이 감지된다.

반면 영남 남인의 제문은 이와는 달리 제문 특유의 형식미를 존중하면서도 망자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일화를 사실적으로 포치하여 생존 당시의 생생한 감정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보인다. 아래 예문을 한번 살펴

壽考福祿，人孰不願，死喪窮戚，亦孰不哀，而唯余於汝，實倍常情，蓋以汝資質之美，清明而溫粹，容貌之秀，犀角而豐盈，孝友出於至性，婉婉合乎女則，具茲衆美。又生于我家，其所以望汝壽考，期汝福祿者，如執左契，朝暮責償，如種嘉穀，待秋而穫。今乃一切反是，有父母不克終養，事君子不滿三歲，生而不及歸見舅姑，沒而不得保其遺孩。備生人之至戚，而爲天下之至窮，孰謂以汝之賢，而賦命之薄，一至於此耶。天乎人乎！神乎鬼乎！使汝至此極者誰耶？悲夫悲夫！痛矣痛矣！吾兄弟七人，汝爲第六，而其後我生十有四年，今以汝之年壽，較之於吾，則塵塵強半矣，九齡之減，其語雖不經，而百身以贖，亦古人所願，如使吾六人者，各減其年數，而可以贖汝之命也。則寧有毫髮愛惜，而天乃偏夭汝一人之命，以爲吾兄弟無窮之戚，何也？豈生殺減益，天亦有不得爲者耶？悲夫悲夫！痛矣痛矣！”

보도록 하자.

- ㉠ 나와 너는 나이는 아홉 살 차이인데, 어릴 적부터 장년이 되기까지 집 안에 서나 집 밖에서나 늘 함께 다니지 않은 적이 드물었다. 지난 임인년(1662, 현종3)에는 말을 나란히 몰고 무더위 찌는 한여름 東海 바닷가에 가서 아버지께 드리기 위한 해산물을 샀고,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江陵에서 경관이 좋은 터를 모두 둘러보았다. 노둔한 말로 먼 길을 다니며 힘든 노고를 함께하였고 꼬불꼬불 위태한 길을 조심조심 함께 다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아버지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다.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 형제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온갖 고초를 겪었으니 뒷날 형제들이 차례대로 죽게 되면 필시 나를 생각하는 눈물을 내가 먼저 흘릴 것이라 여겼다. 세상 이치가 뒤바뀌어 젊은 네가 먼저 죽고 늙은 내가 살아남아 도리어 나로 하여금 이 끝없는 슬픔을 당하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슬프고 슬프다.
- ㉡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조정의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서울에 붙어살며 세상 풍진을 겪다 보니, 오래도록 집안의 모임에도 참여치 못하고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만 부질없이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광망한 천성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화란을 당하여 북쪽으로 남쪽으로 귀양살이를 한 지가 어언 다섯 해가 지났다. 땅끝 변방에서 멀리 고향쪽을 바라보며, 언덕에 올라 너를 생각하고 구름을 바라보며 너를 생각할 뿐이었다. 실로 내 잘못으로 그리된 것이니 또 누구를 탓하랴.
- ㉢ 너는 어릴 적에 사방 유람을 해 보려는 생각이 있었다. 남쪽으로는 方丈山을 두루 구경하고 북쪽으로는 肅愼의 遺墟를 밟아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통쾌하게 풀어 보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곧 나는 남북으로 귀양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너는 병상에 눕게 되었으므로 멀리 유람하고자 하던 생각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매양 편지에다가, 평소 품었던 뜻을 펴 볼 기회를 놓친 아쉬움과 형인 나를 그리워하는 답답한 심정을 수없이 말하였고, 나는 장난삼아, 천리마는 늙어 마구간에 매여 있어도 마음은 항상 천리를 달리고자 한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죽기 전에 임금의 은택으로 사면을 받아 고향에 돌아가서 손을 맞잡고 서로 즐거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 마탕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랐었다. 그 뜻을 펴 보기도 전에 이런 끝없는 한을 남기고 네가 세상을 떠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나의

행실이 신명을 저버려서 이런 슬픈 일을 불러온 것이다.

- ㉔ 네가 병들었을 때에는 張徹처럼 부지런히 몸소 약을 달여 너를 돌보지도 못하였고, 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庾袞처럼 널을 어루만지며 슬픔을 다하지도 못하였다.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몸이라 너의 장례에 가서 애통함을 펼 길이 없고, 나이는 너무 늙었기에 너의 남은 아이들을 잘 돌볼 수도 없을 것 같다. 북쪽을 바라보며 크게 부르짖으니 눈물이 샘솟듯이 흐른다. 우리 아우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정신은 날로 더욱 혼매해지고 기혈은 날로 더욱 쇠잔해지니, 인간 세상에 살아 있을 날이 오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헤아리고, 韓愈가 말한 ‘죽어서도 앓이 있다면 떨어져 있을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말을 늘 읊조리며 자신을 위로할 뿐이다.²⁵⁾

위의 예문은 李玄逸(1627-1704)의 형제 가운데 여섯째인 李隆逸(1636-1698)에게 쓴 제문이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제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생과의 추억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제문의 단락 구성을 살펴보면 ㉑-㉔의 4단으로 나눌 수 있다. ㉑-㉔단락의 앞뒤로는 제문의 형식적 양식에 해당되는 서두와 결미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은 ㉑-㉔단락에 있다.

먼저 ㉑단락에서는 동생인 용일과 9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기로 어

25) 李玄逸, 『葛庵集』 卷22, 〈祭亡弟子躍文〉, “惟我與爾, 年較九歲, 自幼及壯, 出入遊處, 鮮不相與. 歲在玄虎, 聯鑣共邁, 鯨海炎蒸, 遠服賈供親廚之急, 臨瀛風雪, 窮探歷極幽遐之觀, 劣騎長程, 同勤勤之勞, 畏途羊腸, 共慄慄之戒, 及歸反面, 從容晨夕. 私自語曰: ‘惟我昆季, 契闊相從, 惟艱惟悴, 異日兄弟以次淪謝, 爾必先灑念我之淚矣. 孰謂倒行而逆施, 壯者先而老者後, 反使我遽抱無涯之感耶? 痛哉痛哉.’ 余以無能, 竊位于朝, 旅食京師, 顛倒風埃, 久輟花樹之會, 空懷餘日無幾之念, 竟以狂疏, 蹈不測之禍, 投北遷南, 奄經五箇寒暑, 地角天涯, 相望落落, 徒勤陟岡之望, 常切看雲之抱, 吾實致之, 其又誰尤. 君之少也, 嘗有四方之志, 輒擬窮方丈之南, 踐肅慎之墟, 以快其磊砢幽鬱之襟, 屬余漂淪南北, 君已病在床, 遠遊之念息矣. 每憑尺牘, 極道夙志蹉跎, 鶴巢鬱陶之恨, 余戲將老驥伏櫪, 志在千里之語以嘲之. 尚冀未死之前, 幸蒙天澤餘潤, 得歸鄉園, 握手相權譏, 以資一場談噓. 豈意吞不復宣, 貽此無窮之恨乎? 吾行負神明, 自貽伊戚, 病不能躬湯劑, 效張徹之勤, 沒未得撫棺柩, 盡庾袞之哀. 身罹罽羅, 無路伸臨穴之慟, 年迫桑榆, 未能遂撫孤之願. 北望長號, 有淚如泉, 自吾弟逝去之後, 精神日益昏爽, 氣血日益耗竭, 自量非久於人世者, 每誦韓子死而有知, 其幾何離之語以自釋耳.”

올려 지냈던 사이임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임인년 한여름에 아버지에게 드리기 위해 해산물을 샀던 일화를 서술하여 용일의 효성이 남달랐음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단락에서는 구사당 본인의 처지를 서술하면서 동생의 죽음에 즉자적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기술하였다. 이를 이어 ㉡단락에서는 동생의 遊覽趣를 반추하며 같이 유람하는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이별한 데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락에서는 병석에 누워있는 동생을 잘 챙겨주지도 못한 채 세상을 등지게 만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전반적 구성은 동생과의 추억을 중심으로 한 단락 ㉠과 ㉡, 그러한 동생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저자의 회한을 단락 ㉢과 ㉣에 배치해 서술하였다. ㉠과 ㉡을 통해서서는 동생의 인물됨과 관련된 기억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어 잊지 않고자 하는 바람을 서술하였다. 반면 ㉢과 ㉣을 통해서서는 기억을 통해 상기된 자책과 회한, 안타까움의 감정을 노출하여 망자에 대한 위로를 거듭 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위와 같은 단락 배치는 동생에 대한 감정의 억양과 조응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서술하려는 인식에서 기인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생과의 추억이 갖든 일화를 연속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묘도문자와 같은 전기문의 형식과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게 된다.

제문은 서술자와 망자 사이의 특별한 경험과 인연이 서술 내용의 중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둘 사이의 인연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육체적, 정서적 이별을 서술해야 하기에 감정의 긴장과 이완을 얼마만큼 조절해 서술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같아미 동생에게 쓴 제문은 단락 배치를 통해 이 점을 조절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 妻子에 대한 회한과 애뜻함

앞장에서 형제에게 쓴 제문을 살펴보았다. 형제의 경우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장성하기까지 경험을 공유한 점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장성해서는 일가를 이루어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새로운 인간 주체로 성장해 나가며, 그 중심에는 아내와 자식이 자리하게 된다. 즉 妻子가 새로운 삶의 주체로 성큼 다가오게 되며, 이를 통해 家長이라는 새로운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가정의 입장에서 처자를 먼저 떠나보내게 될 경우 그 의미는 여간 심중한 게 아니다. 부모와 이별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라면, 처자를 먼저 보내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순리에서 어긋나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서적 충격의 강도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게 된다.

아아, 슬프다. 너는 넉넉하고 영민한 재주를 지니고도 진창에 날개를 드리운 채 이름이 科榜에도 한 번 오르지 못하였고, 선량하고 화려한 행실을 지니고도 중년에 병이 들어 마흔의 나이도 채우지 못했구나. 어찌 하늘은 좋은 자품을 많이 주어 태어나게 해 놓고 그에 대해 보답하는 일은 어그러지게 하는 것인가.

너는 우리 仲氏의 後嗣가 되었고 중씨는 또 우리 季父의 후사가 되었는데, 계부는 덕성이 청렴하고 공경하였으며 중씨는 학문을 좋아하고 행실이 독실하였으니, 의당 음덕으로 보답받는 경사가 있어야 하겠거늘, 결국엔 그 후사가 요절하고 그 代가 끊어지고 말다니, 善行을 쌓은 집안에 경사가 있어야 하는 이치가 또한 어찌 이리도 전도되었단 말이나. 천명인가? 운수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음인가? 아니면 나의 행실이 神明을 저버려서 너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요절하게 한 것인가?

형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내가 이어서 이루어 주리라 기대했으며, 내가 繼述하고자 뜻했던 바를 네 힘을 빌려 완결 짓고자 했었다. 이제 모두가 끝났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라.

아아, 슬프다. 남은 너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밤낮으로 통곡을 하는구나.

더없이 애통해하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세상일이 허망하다. 문호는 누가 지킨단 말이나. 나는 허연 머리로 슬피 운다. 정신은 흐릿하고 눈은 침침하다. 긴긴 여름날과 긴긴 겨울밤을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롭게 보냈다. 낭랑한 목소리와 흰한 네 모습이 귀에 쟁쟁하고 눈에 선하였다. 그러나 놀라 일어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였다. 조용히 말없이 가슴만 아파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다.

돌아보건대, 나도 이제 그럭저럭 늙은 몸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지낼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슬프지 않을 날이 무궁하리라는 것을 아니, 애통함을 참고 슬픔을 억누른다. 이제 네가 저세상으로 영영 떠나는 날이라 술을 뿌려 너에게 영결을 고한다. 너의 영령이 모르지 아니하거든 와서 흠향하기 바란다.²⁶⁾

위의 예문은 갈암의 둘째 아들 穰(1648-1685)에 대한 제문이다. 둘째 아들 의는 갈암의 형인 李繼逸(1619-1672)의 후사로 보내졌으나 병으로 인하여 나이 38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아들을 통해 형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과 본인이 찬술한 업적을 완결하려 했으나 그러한 바람이 결국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회한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점은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들의 울음소리를 통해 형상화 되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서술한 데서 잘 드러난다.

비록 형의 후사로 보내진 아들이긴 하나 자기 품에 있었던 자식이기에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회한은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집안의 후사를 위해 자식을 품지 못하고 형의 자식으로 출계시켜야 하는 행동은 전통적 가문의

26) 李玄逸, 『葛庵集』 卷22, 〈祭亡子穰文〉, “嗚呼哀哉! 汝有禮華瞻敏之才, 而垂翅泥塗, 名不登一科, 汝有慈良愷悌之行, 而纏疾中年, 壽不滿四十. 何天降生之篤, 而報施之外耶? 汝後我仲氏, 仲氏後我季父, 季父有公廉平正之德, 仲氏有好學篤行之懿, 宜荷垂休錫羨之慶, 而畢竟夭其嗣而絕其緒, 積善有餘慶之理, 又何其顛倒耶? 命矣乎, 其數之或然者乎? 抑吾行負神明, 不得庇汝而使汝夭乎? 兄有未卒之業, 望汝以續, 我有續述之志, 待汝以定, 今皆已矣. 尙復何言, 嗚呼哀哉! 孤孀稚子兮, 日夕號隕, 痛毒煩冤兮, 胡寧有忍, 世事兮牢落, 戶門兮誰持, 白首兮酸叫, 魂銷兮眼萎. 夏之日兮冬之夜, 長相思兮苦相憶, 琅琅音兮暫暫容, 宛在耳兮在目. 驚起而無所見聞兮, 情恟恟而俗儼悄. 無言而疚懷兮, 涕淫淫而潛垂. 顧余冉冉其遲暮兮, 居此世其幾何哉. 知不悲者無窮期兮, 聊忍痛而抑哀. 今當長歸兮, 瀝酒致告, 精爽不昧, 尙其來右.”

절차상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심정은 그리 편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처자마저 두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심정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식 잃은 슬픔은 황망하고 답답하며 눈물만 흘러내리는 감정의 유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표현될 뿐이다. 갈암의 제문은 상대적으로 문체에 흐르는 정조가 담백하며 건조한 편에 속한다. 감정의 과잉 분출이나 폭발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학봉의 학맥을 계승한 당대 퇴계 학파의 최대 적자 가운데 하나인 자신의 학문적 연원에서 배태된 감정의 조절이 문면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 지점이다.

앞선 <표1>을 통해 확인되듯이 자식을 잃은 뒤에 쓴 제문은 영남 남인의 문집 속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제 손으로 묻은 것도 모자라 글을 통해 자식의 죽음을 다시 환기해야만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가혹하기만 하다. 때문에 자식에게 쓴 제문은 ‘祭○○文’의 제목보다 ‘哭○○文’의 방식으로 제명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슬픔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서자에게 쓴 제문도 발견된다. 영남 남인의 경우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간간히 확인되는 편이다.²⁷⁾ 서자라는 특수한 관계이긴 하나 그 또한 부모와 자식이라는 근본적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의 죽음과 슬픔이라는 명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아내를 먼저 보낸 슬픔을 서술한 <祭亡室文> 역시 문집 내에서 다수 확인된다. 영남 남인의 문집에 수록된 <제망실문>의 경우 현숙한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로써의 형상을 강조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일례로 趙沐洙(1736-1807)의 『舊堂集』에 수록된 <祭亡室端人平山申氏文>을 살펴보면 저자는 아내의 현숙함을 드러낸 일화를 특기하면서 아내가 시집오던 당시 저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빈소가 차려져 있던 상황을 서술하였다. 가사 일을 전혀 모르는 까닭에 고생하면서 평생 가정을

27) 李義發의 『雲谷集』 卷12에 수록된 <祭側室子魯貞文>이 대표적이다.

이끌어 온 아내의 성품에 감동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골고루 인정을 베풀던 아내의 행동을 통해 인후함을 강조하여 기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로 살아왔던 고통과 아내의 삶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일정부분 내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보편적 삶의 방식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삶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여성 개인에게는 가혹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제문은 비록 죽은 이후에 기술된 글이긴 하나 망자에게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禮에 해당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평생의 삶이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기에 제문은 일생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영남 남인이 서술한 망실 제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기술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3. 親戚에 대한 연민의식

앞서 17세기 이후 제문의 흐름에서 주도적으로 보이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親戚을 대상으로 한 제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제문에 가족이 다수 포섭되기 시작하면서 친척과 관련된 제문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기저에 깔린 가문의식으로 인해 산생된 현상으로 이해되며, 비록 친척이긴 하나 친밀도의 양상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척 관련 제문이 다수 창작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작품으로 九思堂 金樂行(1708-1766)의 제문을 들 수 있다.

‘九祭密札’이라는 어휘로 대표되는 구사당의 제문은 당대의 으뜸으로 이미 평평이 나 있었다. 구사당이 남긴 제문을 살펴보면 처자에 대한 것은 없으며 가족 가운데 친척 관련 제문이 몇 편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남 남인 제문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구사당의 친척 관련 제문을 통해 가족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㉔ 나 또한 자식인지라, 문보의 효성을 보고 홀로 계신 내 어머니를 끝까지 잘 봉양하고자 하였다. 나 또한 형인지라, 문보의 우애를 본받아 한 명 있는 아우와 잘 지내려 하였다. 식견이 알고 사려가 짧은지라, 문보에게 의지하여 집안을 돌보고 내 몸을 보호하려 하였다. 의지가 약하고 기가 허약한지라, 문보에게 의탁하여 일을 판단하고 남에게 대응하려 하였다. 문보는 말과 의론이 조리 정연하니, 나의 거칠고 답답함을 도울 수 있었고, 마음속 생각이 넓고 평탄하니 나의 성급하고 좁은 소견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 ㉕ 구구한 글재주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가 조금 나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꼭 다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전 역사의 상하역대 治亂 흥망과 政事의 득실과 인물의 좋고 나쁨에 널리 통달하였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논한 글을 두루 보아 기억하였으며, 일을 당하여 대응해 나간 요점을 취해서 마음속으로 이해하였고, 산천의 夷險과 인구 [人戶] 의 盛衰와 古今 沿革의 곡절을 찾아다니며 물었다가 일에 적용한 것 같은 점들이다. 이 같은 종류를 다 거론할 수 없는데 모두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모두 끝이로다. 이제 모두 끝이로다.
- ㉖ 오호라, 슬프도다. 얹어 놓은 동이 속과 같은 나의 처지에서야 실로 천운을 바랄 수 없지만, 문보의 운명에 대한 점괘 말은 그 기대가 넓고도 원대하였다. 장생불사를 기대할 수 없음이야 나와 문보가 다를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지하로 돌아가 先人 뵈기를 조금 기다리지 않을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문보는 한편으로 풍수술을 익혔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심히 훌륭하게 여기지는 않더니, 죽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이미 왕왕 그 안목에 탄복을 한다. 나는 불효하게도 자갈땅에 선친을 장사 지내 놓고 이장할 마음을 먹은 것이 이제 8, 9년이 되었는데 문보가 있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이 계획을 이룰 수 있으랴.
- ㉗ 내가 문보를 사랑함은 단지 마음으로만 해서 일에 드러난 것이 다른 형제들과 다름이 없었는데, 내 성품이 영성하고 게을러 모든 至親을 대함이 종종 야박하였으니, 문보에겐들 또한 어찌 애써 힘쓸 수 있었으랴. 그러나 문보가 나를 사랑함은 마음과 일이 서로 어우러져, 나에게 근심과 질병이 있으면 오직 문보가 힘이 되었다. 이 때문에 혹 문보에게 맡기고 멀리 나갔다가 돌아와서 들어보면, 바쁘게 집안일 처리함이 내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이었지. 내가 바야흐로 北峽에 떨어져 살 때 母子와 형제가 거의 서로 지

켜 줄 수 없어 장차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해야 하였는데, 어찌 친척이 없었겠는가마는 누가 문보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내가 처와 아이를 데리고 북협에 우거한 것은, 대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자가 필시 그 뒤에 거론함이 있었을 것이나, 내가 어디를 간들 거주가 이롭고 해로웠을까? 문보여, 문보여. 내가 이때 문보를 생각함이 마땅히 어떠하였겠으며, 마땅히 어떠하였겠는가.²⁸⁾

위의 예문은 구사당이 종제인 金賁行(1708-1756)에 대해 쓴 제문이다. 김분행은 제산 金聖鐸(1684-1747)의 아우인 金警鐸(1687-1707)의 아들로 구사당은 자신과 태어난 해가 같은 동년배인 문보에게 의지하며 지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문을 통해 문보의 인간됨을 드러낼 수 있는 특징적 국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㉔단락에서 중점을 둔 것은 문보의 효성과 우애에 대한 것이다. 구사당은 이를 서술하기 위해 위 단락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대구를 활용한 전이한 문체 서술방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구사당과 문보가 대비적으로 서술되어 결과적으로 제문의 대상자를 존송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효

28) 金樂行, 『九思堂集』卷9, 〈祭從弟文甫文〉, “吾亦子也, 欲視文甫之孝, 終養吾偏親. 吾亦兄也, 欲倣文甫之友, 相好于一弟, 識淺而慮短也. 欲取之文甫, 以庇家而衛身, 志弱而氣餒也. 欲托之文甫, 以斷事而應物, 言議之秩秩, 可以助吾之澁滯. 智懷之坦平, 可以矯吾之猥隘. 至於區區文字之技, 人固謂吾有一日之長, 而其實則有不必盡然者. 若該通前史上下歷代治亂興亡政事得失人物臧否, 記覽東人論事文字, 取其遇事施設之大端而會之於心, 詢訪山川夷險人戶盛衰古今沿革之委折而可措於事. 若此類不可盡舉, 而皆吾所不及者, 今皆已矣, 今皆已矣. 嗚呼哀哉! 覆盆固無以望天, 而文甫端策之說, 其期闊乎遠矣. 其不能久視以待, 吾與文甫無異也. 然豈意不少須, 同我而歸見先人於地下耶? 文甫旁習風水術, 向也人不甚奇之, 死未一年而已, 往往追服其眼目, 吾不孝, 葬先君於砂磔之地, 圖所以改葬者, 今八九年, 而文甫不在, 吾其能遂此計乎? 吾之愛文甫特以心, 而所以形諸事者, 與他兄弟無別. 吾性疎, 凡處至親者, 往往而薄, 其於文甫, 亦何能強勉哉? 而文甫之愛我, 則心與事相從. 吾有憂患疾病, 惟文甫是賴, 以是或委之而遠出, 歸而聞之, 其奔走救治, 甚於吾之在家. 吾方流離北峽, 母子兄弟, 殆不相保, 其將告訴於何人. 豈無親戚, 誰有如文甫者乎? 吾之挈妻兒, 寄寓北峽, 蓋有不得已者, 而人之不諒者, 必有議其後者, 吾何從而卜居之利害乎? 文甫文甫, 吾於此時思文甫, 當如何哉, 當如何哉.”

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락 ㉔에서는 글재주와 관련된 문보의 특징을 나열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해 기술하고 있다.

한편 ㉕단락을 통해서서는 ‘嗚呼哀哉’라는 탄사를 통해 문면의 흐름을 조절 하면서 문보의 여타 특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즉 문보가 풍수술을 익힌 뒤 안목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문보의 부재 이후 부모묘의 이장을 관장할 이가 없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서술한 것이다. 이후 ㉖단락을 통해서서는 문보에 대한 성품을 자신과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즉 구사당 자신은 성품이 영성하고 게을러 지친들에게까지 야박하게 대하고, 이는 문보에게도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보는 늘 한결같이 자신을 대해준데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 결과 구사당 자신은 집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보로 인해 집안이 제대로 건사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문보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서술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친척을 대상으로 한 제문의 경우 생전의 우애와 성품 그리고 제문을 서술하는 이가 당사자와 공유했던 경험, 받았던 도움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망자와의 추억을 회상함과 동시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아련한 연민의식이 발현되는 것이다. 친척의 경우 주로 거의 연배가 비슷한 중형제들이 많은 관계로 형제나 거의 다를 바 없는 존재다. 게다가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일원으로 동류의식이 강하게 형성되는 편이다. 반면 같은 연배에서 비롯되는 은근한 경쟁관계 또한 형성되는 독특한 관계망을 가진다. 평생을 통해 협력과 경쟁을 공유하는 관계가 제문을 통해 정리된다는 측면에서 친척 관련 제문은 미묘한 평행선을 그려나갔던 그들의 삶을 포착한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IV. 嶺南 南人の 祭文에 나타난 家族의 의미

앞서 형제, 처자, 친척을 대상으로 한 제문을 통해 가족이 어떠한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제문에 펼쳐진 가족의 의미는 안타까움과 회한, 동류의식,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점철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문이 가진 성격 자체가 슬픔이란 감정을 기저에 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수준 높은 격식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양식적 특성에서 기인된다.

영남 남인의 제문은 형식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양식적 특성에 대한 준수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속성은 여타 지역과 인물의 제문에서도 공히 확인되는 현상이다. 문체는 제문 또한 조선후기로 넘어가면서 양식적 전범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金昌協, 趙龜命, 朴趾源, 李德懋 등의 작품을 통해 제문이 문학적 개성을 발현하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에 반해서 영남 남인의 제문은 감정의 분출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자를 특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다. 때문에 전반적인 서술의 기조는 양식적 특성에 기초하여 전이한 문체를 통해 품격 있는 문장을 쓰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앞서 구사당의 제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영남 남인의 제문을 통해 가족을 들여다 본 것은 결국 영남 지역의 문인들이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가족이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 정신적 교감자, 때로는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인, 가슴 먹먹하게 만드는 회한과 슬픔의 상징 등으로 존재하였다.

이는 제문을 통해 투영된 영남 남인의 시대 인식의 일환으로도 이해될 수

29) 이점은 제문을 중심으로 편역한 선집에 수록된 글의 다수가 이른바 老論, 少論 계열의 문장이 중심의 글이 선별된 것에서 아울러 간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치적 능력이 거세된 집단의 일원이었기에 시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은 넓을지라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늘 정치에 대한 원대한 포부는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때문에 결핍에서 야기된 정서적 상실감을 충족시키고자 가족을 중심으로 몽칠 수 밖에 없었다. 영남 남인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식의 발현은 이러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구성원을 상실했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족이란 존재는 영남 남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자 영원한 응원군이였다. 이러한 가족의 의미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며, 이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V. 맺음말

언론을 통해 비쳐진 오늘날의 가족의 의미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가족이란 의미망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각각 다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충분한 상호 소통은 상대적으로 부재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듯하다. 때문에 가족의 해체란 말이 다소 심드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고는 가족의 의미를 영남 남인의 제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전형적인 실용문 양식인 제문을 통해 가족의 부재를 과거에는 어떻게 표출하였으며, 그 문면에 흐른 슬픔의 미감을 과연 얼마나 감동적으로 절실하게 전달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맞춰본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문을 통해 표출된 가족의 의미는 아련하고 안타까우며 슬픔의 정서를 띠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승화시켜 새롭게 삶의 일부로 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본고의 작업을 통해 제문에 형상화 된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새롭게 부각되고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하지만 영남 남인의 제문 자료를 정리해 보고자 한 것에 우선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영남 남인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로컬리티’의 관점이다. 지역을 중심에 두고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에 매몰되고자 함이 아니라 ‘지역’을 제대로 착실하게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문 뿐만 아니라 人物傳, 墓道文字, 雜著類 소재 逸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산견된다. 이들 자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대한 것이 많다.

필자는 앞으로도 영남 남인과 관련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본고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다. 비단 제문이란 양식 뿐만 아니라 영남 남인의 전모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본고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을 간단없이 진행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2월 2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3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金樂行, 『九思堂集』, 『한국문집총간』222, 한국고전번역원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161-162, 한국고전번역원
李玄逸, 『葛庵集』, 『한국문집총간』127-128, 한국고전번역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嶺南文集解題』, 1988
한국국학진흥원, 『文集解題』1-24, 2002-2017
- 권기석, 『족보와 조선 사회』, 태학사, 2011
김덕진, 『大饑饉』, 푸른역사, 2008
김윤조 외, 『18세기 嶺南 한문학의 전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총서26, 계명
대 출판부, 2011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우인수, 『朝鮮後期 嶺南 南人 研究』, 경인문화사, 2015
이은영, 『祭文, 양식적 슬픔의 미학』, 태학사, 2004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학적 양상』,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총서12, 계
명대 출판부, 2011
정병호, 『영남 선비의 형상과 인문정신』, 지성인, 2015
『중앙일보』, 2017년 4월 13일, 「급속한 가족해체, 2045년 10가구 중 7가구는
1·2인 가구」
- 김성기, 「제례문의 성격과 구조」, 『우전 신호열 선생 고회 기념 논총』, 창작과
비평사, 1983
김윤조, 「연암의 이몽직 애사에 대하여」, 『漢文教育研究』4, 韓國漢文教育學會,
1990
——, 「농암의 애제류 산문문학소고」, 『韓國漢字漢文教育』4, 韓國漢字漢文教育
學會, 1998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국어국문학』138, 국어국문
학회, 2004
서정화, 「박제가의 제문 및 송서 연구」, 『어문논집』51, 민족어문학회, 2005

- 이구의, 「嶺南 漢文學 資料集成의 事例와 그 意義-權泰乙 編 『尙州漢文學』을 中心으로-」, 『大東漢文學』45, 大東漢文學會, 2015
- 이승수, 「제문 형식의 미학적 가능성」,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 이은영, 「조선 후기 어제 제문의 서정성과 규범성」, 『韓國漢文學研究』30, 韓國漢文學會, 2002
- _____, 「제문의 구조와 미적 특질」, 『大東漢文學』12, 大東漢文學會, 2002
- _____, 「애제문의 특징과 변천과정」, 『東方漢文學』31, 東方漢文學會, 2006
- 이종호, 「지역 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39, 韓國漢文學會, 2007
- 유경숙, 「조선조 여성 제문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5
- 정수미, 「조선시대 망실 제문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1999
- 한의승, 「『汨董錄』 소재 逸話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6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_____, 「人文地理적 관점에서 본 嘯臯 朴承任의 『門人錄』」, 『한국선비연구』3,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2015
- _____, 「『嶺南人物考』에 수록된 榮川 지역 文人 研究」, 『한국선비연구』4,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2016
- _____, 「『闡幽錄』 계열 ‘雜錄’의 유전 양상 연구」, 『大東漢文學』50, 大東漢文學會, 2017
- _____,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고전 독해’에 대한 시론적 탐색」, 『한민족어문학회 324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
-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녀문 연구」, 『韓國漢文學研究』30, 韓國漢文學會, 2002
- _____, 「조선후기 제문 연구 : 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25, 大東漢文學會, 2006
- 황위주, 「일제강점기 문집편찬과 대구·경북지역의 상황」, 『大東漢文學』49, 大東漢文學會, 2016

"Family" and Its Meaning in terms of funeral oration of Young-nam Nam-in

Han, Eui-soong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point of youngnam nam-in's point of view and expressions on their families through the funeral orations created by youngnam nam-in after 17thcenturies. This is one of the trials to search the possibilities to reorganize the meaning of family in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Among the youngnam nam-in's funeral orations, this paper limited the range as within direct family members like brothers, sisters and relatives and analyzed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the beautiness.

As a result, the funeral orations for brothers tends to show reverence on its unique formation and tells stories which involves the beloved one, which focuses on sharing the vivid emotions when the beloved one was alive.

And the funeral orations for daughters shows the sense of emotional reserve without excessive expression even though it is hard to control the tone of the message after losing a daughter. Also it describes deep condolences for the beloved one as wife, mother and daughter-in-law who had to take enduring life as what it was for women at then. Lastly, the funeral orations for the relatives show

brotherly love, characteristics and shared moments with the beloved ones, which reminds the family of the memories of the deceased and shows sympathy for the dead.

It is still questionable how much the meaningfulness of the family expressed through the funeral orations would be more outstanding. However, after researching on youngnam nam-in's funeral orations this trial seems worth it to trace the formation of the family related meaningfulness. In the future as more intensive researches go for the youngnam nam-in, the author plans to focus on 'local regions' with the research theme of 'locality'. Through processes like above, accesses in depth would be done for the region youngnam and the meaning of characters, which adds more values on this research paper.

Keywords

Young-nam Nam-in, Funeral oration, Family, Locality, Regret

